

**로컬 뉴시스**

**군산경찰 상반기 교통경찰활동 분석결과 교통사고 대폭 감소**

올해 상반기 교통경찰활동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주민 교통 불편이 대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발생 관련 각종 지표를 보면 교통사고 전체 발생건수는 지난해 831건에서 660건으로 171건(-21%),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에서 10명으로 5명(-34%), 부상자는 1287명에서 1045명으로 242명(-19%)이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지 324명, 추소 340명, 측정 거부 8명 등 672명을 적발했으며 신호위반 924건, 이륜차 47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3만 3천여 건을 단속했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신고 1404건 접수 처리, 체납 과태료 8억 2천여만원을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518건을 영치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어촌공사 모내기 급수 완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관내 11,654ha에 달하는 농지에 대한 모내기 급수를 100%완료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지사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평균저수량을 40%로 저수량 확보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근무 등 사전준비 끝에 영농기 시작 전 저수량을 78%까지 끌어올려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했다.

또한 장미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 침수지역 안전점검, 배수장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이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용수 공급 상황 점검 및 재해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지사 및 각 지소에 24시간 체제로 물관리 및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승강기 사고 승객 구조 훈련**

익산시는 승강기 고장 시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중대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최근 승리문화예술회관에서 2016년 승강기 안전 사고 승객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익산시 주관으로 익산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유지관리업체인 한국승강기안전공사가 참여했다. 정현울 시장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승강기 관리담당자, 대형마트승강기 관리담당자,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 시작에 앞서 빈번해지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라 잡은 이용수단인 승강기의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부실 등 경각심을 가졌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 대야 새청사 30일 개청식**

군산시 대야면사무소(면장 김석근)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 준공을 마치고 개청식을 갖는다.

개청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대야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을 비롯한 문동신 군산시청 진화환 군산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새로 단장한 대야면사무소는 지난해 4월부터 총 사업비 34억을 들여 지상 3층, 면적 451평 규모로 건립했다.

1층에는 민원실과 헬스장, 2~3층에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노래교실, 대화의실 등이 배치되어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야면 신청사는 청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의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편의도 한층 높일 전망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②군산 관광산업의 현주소**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군산 지역경제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회복이 엇갈리는 등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제집체의 골이 깊은 현 시점에 관광산업으로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군산 경제는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하락 등으로 침체하고 있는 반면, 근대역사관광벨트화와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앞세운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호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군산 경제의 현장을 진단하면서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발전 방안을 다룬다. (편집자 주)

**▲산, 바다가 어우러진 군산의 천혜 자연조건**

군산은 월명산, 청암산을 비롯해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조건을 갖춘 관광도시로 연간 135만여명의 유료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청암산은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편백나무 숲 조성 등을 통해 명품 생태관광지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총 33.9km인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개발, 비응도 관광여행개발 등과 연계해 최적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고군산연결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천혜의 비경과 관광 인프라를 갖춘 선유도 해수욕장, 장자도 등에 해양관광과 휴양을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군산내 가장 큰 섬인 신시도는 맨손으로 가기를 즐기는 '갯바위 체험' 등을 통해 어촌체험마을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글 실는 순서**

- ①위기의 군산경제
- ②군산 관광산업의 현주소
- ③지역관광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따라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 행사, 색다른 볼거리 제공 어촌관광 체험시설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역사와 문화공간이 숨쉬는 근대역사거리**

일제강점기 근대역사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군산 근대역사거리를 둘러보는 관광객이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 축제는 지난해 30만여 명이 방문하면서 군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또 지난 봄 주간 사흘간 열린 근대골목길 페스티벌에도 10만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군산세관, 조선은행, 일본8은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20곳을 방문해 완성하는 '군산스텝 투어'와 임피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등을 둘러보는 시티투어



버스 '근대문화코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이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찾아가는 근대문화·역사 체험학습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대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은 14년 42만 15천 81만, 16년 5월 3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95%는 타지역 관광객으로 군산 관광지와 먹거리를 찾아 나서

버무르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체육행사 및 국제대회 개최에 찾아오는 방문객**

군산에서는 매년 다양한 체육행사와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문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스포츠 수요자가 증가되면서 군산시는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관광도시로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세계서팩타 크로대회, 금식배전국학생축구대회 등 매년 개최되는 국제 및 전국 대회는 16건에 올해 계획될 각종 대회는 40여건이다.

지난해 치러진 각종 대회를 찾은 관광객은 12만명으로, 경제 파급효과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장점을 살려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집현후 스포츠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투자를 가해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 군산학'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대상 지역 역사·인물 이해 학교 현장 찾아가 교육 증진 위해**

군산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어린이 군산학이 각광받고 있다.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 군산학'은 지역에 대한 역사와 인물을 이해하고 고교에 대한 애郷심을 길러 미래 군산시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사업이다.

어린이 군산학은 2014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까지 관내 30개 초등학교(95학급 2800명)에서 진포대첩과 조운선 등 주제가 있는 군산 이야기와 군산 출신 대표적 소설가인 허재민식 작가의 인물이야기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올해도 지난 4월 미성초등학교

를 시작으로 관내 29개 초등학교(96학급 2300명)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군산의 개항과 수탈 및 이영춘 박사 이야기 등을 다룬다. 한편 팔엄밭이나 약방지 만들기 등 창작활동 시간을 편성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 군산학을 확대해 극단사탐제상 소극장에서 '어린이 군산학 연극교실'을 운영해 어린이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와 협약으로 어린이 군산학 강의를 총괄하는 (사)아리움역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 문화유산 방문교육 단체로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백제세계문회유신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작은 학교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어린이 군산학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 지역 신시도·무녀도·개야도·새만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문을 통한 이론편과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유적지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산을 알아야 한다'는 슬로건을 전제로 관내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백제유적지구탐방을 통해 이론과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생 대상으로 역사관련 직업 주제를 통한 미래비전 찾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서부보훈청 6.25 참전 12명에 호국영웅기장 수여**

전북서부보훈청(지청장 이우실)은 지난 25일 익산 예술의전당 증경연장에서 열린 6.25전쟁 제66주년 행사에서 6.25참전호국영웅 12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다.

이번 호국영웅기장 수여는 국가보훈처 국정과제인 '병예로운 보훈 실현'과 제 중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6.25참전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이 중 익산시에서는 32명 중 고병길 권오방 김영문 김태환 박종윤 신용우 유규상 이기창 정갑재 정영순 최학신 한상진 등 12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전북서부보훈청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호국영웅의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관내 시·군과 협력해서 지자체장이 직접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개최해 추진하여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군에 거주하는 128명의



호국영웅의 전수를 마치고 이날 익산시에서 마지막 행사를 가졌다. 호국영웅기장을 전수받은 김태환님은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전했던 공로를 지금이라도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한 사건과 업적, 특정한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호국영웅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에 한차례 수여되었으며, 2013년에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생긴 6.25참전유공자 17만 9천여명에게 수여된 바 있다.



**3개 광역 생활나시 밴드인 친선 교류대회 개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문도 앞바다에서 전북과 광주전남, 세종시 등 3개 광역 생활나시 밴드인들의 친선 교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5일 전북생활나시밴드(JIF 밴드장 이준배) 주최로 고군산문도 밀도 일원에서 광주·전남퍼니피싱(밴드장 박영준) 밴드와 세종시밴드(밴드장 유찬준) 등 3개 광역밴드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선상나시 친선 교류대회'가 개최됐다.

이런 3개 광역밴드 교류대회는 정치불신 등으로 쌓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활나시인들의 취미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데 앞장서기 일환

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는 전북 A팀과 세종시팀, 전북 B팀과 광주·전남팀이 각각 선단을 이룬 모두 4개팀 28명이 경합을 벌였다.

대회 대상에는 참돔으로 모두 2마리를 올린 전북 B팀이 팀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 역시 전북 B팀 소속 정정규(N·S 갯바위 필드스텝)씨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집어상으로는 63cm 광어를 잡아 올린 전북 A팀 이준배씨, 우럭 42cm를 잡은 광주 전남팀 김석수씨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여산면 주민 정현울 시장에 감사패 전달**

익산 여산면 주민들이 여산 신리~호월마을 주민들의 주 진입로인 도로 폭이 4m로 협소해 도로 기능이 떨어져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제 시는 도로 1.4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1억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2개차로 6.0m로 확장하는 공사를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이달 중순 최종 준공했다.

정현울 시장은 "도로 확보장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완전 해소되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익산=정왕원기자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여산면 주민들은 정현울 시장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던 도로확포장 공사를 잘 마무리 해준데 대한 감사의 인사했다. 익산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여산면 호산리 신리마을과 호월마을을 연결하는 여산 신리~호월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 여산 신리~호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여산면 신리마을, 신평마을 및